

#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불법 개발행위 극성

### 제주자치경찰 원형 훼손 등 29필지 불법행위 적발 4명 구속영장·9명 불구속 송치... 투기 7건도 확인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려 공유지와 보전지역을 훼손한 개발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와 인근 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9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58)씨는 지가 상습을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 훼손해 산지관리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 1만 550㎡를 지난 2019년 7월에 매입한 후 2개월 간 인접 임야와 분할, 합병하는 방법으로 12m 도로로 연결해 지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절벽 암석 1만여kg을 절토해 1907㎡ 가량을 훼손한 후 농경지로 만들었다. 또 인접 공유지 임야 총 5982㎡를 훼손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세화리 임야 등 12필지 4만6㎡를 허가받지 않고 훼손한 후 농지

를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20억여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77억여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손모씨(80)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건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대 보전지역임에도 휴게음식점 3층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뒤 경사면을 절토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3817㎡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의 불법행위로 48억5000

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 자치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2명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됐으며, 공유지 무단 점용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1차적으로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공항 인근 지역 투기 의혹을 조사를 벌인 것에서 착안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제2공항 사업 발표 이전 사전 정보를 취득한 사례 등은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녹차밭 차광망 씌우기 작업** 어느새 여름이다. 한낮의 햇볕도 시나브로 뜨거워진다.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조그만 그늘막도 그 어느 때보다 반갑기 그지없다. 10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오설록 녹차밭에서 직원들이 녹차나무에 차광망 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코로나19 유행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 1.01... 유행 이어져 감염경로 불명확 확진자도 이달만 23% 차지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발생 수치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유행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모임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10명(1159~1168번), 10일 4명(1169~1172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172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130명이 확진됐다.

도 방역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1을 보이는 점으로 미뤄 유행이 누그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확진자 발생 비율을 보면 도

내 거주자가 약 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경우는 86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확진자는 총 26명으로, 이달 확진자의 20%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일 확진된 이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5명(1159·1163·1164·1165·1167)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1160·1161·1162·1166·1168)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

이들 가운데 3명(1159·1164·116

7)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동선과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일 확진된 이들은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2명은 확진자의 가족, 2명은 확진자의 지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동선과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14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의사 또는 약사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 후 일주일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확진된 475명 중, 역학조사 결과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총 119명이다. 확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병·의원은 총 77개소로 확인됐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의 협조를 통해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감염이 우려된다면 주저 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지역 내 조용한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 음주측정 거부·도주 30대 구속영장 신청

### 경찰, 9시간 만에 검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수갑을 찬 채 약 9시간 가량 도주한 관광객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18분쯤 제주도 구좌읍 소재 게스트 하우스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측정을 거부했다. 20분 가량 공방이 오가자 경찰은 A씨를 헌법으로 체포하기 위해 팔 한쪽 에 수갑을 채운 순간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다음날 9일 오전 8시30분쯤 A씨를 체포했다. 강민성기자

# "나체사진 보내면 대출해 드립니다" 사진·영상 필미 1억원 갈취한 모자 구속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인 뒤 여성 5명으로부터 1억원을 갈취한 모자가 나란히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어머니 A(44·여)씨와 아들 B(19)군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페이스북에 '당일 여성 대출 전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여성에게 "4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담보가 필요하다"며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

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진과 영상을 받은 이들은 태도를 바뀐 피해 여성 5명에게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등 1억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중 1명에게는 피싱에 가담하지 않으면 유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나체사진을 유폐하겠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돌입해 지난 4일 타 지역 PC방에서 B군을 붙잡았다. 이어 7일 타 지역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나란히 구속됐다. 강민성기자

# 거짓 매입계산서로 돈 수취한 40대 징역형

### 제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매입계산서를 수취해 15억여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을 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해주면 위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29일 C회사로부터 2억여원의 거짓 매입계산서를 받는 등 2018년 7월까지 9회에 걸쳐 15억여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억원 이상이 세금이 부과됐음에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성기자

# 물질하던 80대 해녀 숨져

제주시 화북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8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46분쯤 제주도 화북동 화북포구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A(86)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해녀 동료에 의해 질을 하던 8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GA** :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WAS 바실러스** :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O.M

코코리

검색

##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